

좋은 경험 3요소

(싸앗 : 예쁘다)

주제 : 캄보디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5-2학기 동계 캄보디아 문화체험 3조



Team Leader
양진성(e-Business학과)



Team Member
전예하(e-Business학과)



Team Member
장지연(사학과)



Team Member
김지영(사학과)



Team Member
이가람(정치외교학과)



Team Member
김민정(정치외교학과)

앙코르 와트

당시 왕들은 사원을 통해 업적을 남기고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사원 준공에 많은 건축가들이 동원되었는데, 수리아바르만의 임기가 끝나고 다음 임기의 왕이 앙코르 와트를 짓던 건축가들을 자신의 사원을 짓기 위해 데리고 갔기 때문에 미완성 된 상태로 남아있다.

● 앙코르와트가 무너지지 않은 비밀!!

지반이 평평하지 못한 곳에 돌로 지어진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 그 비밀이 마르지 않는 해자와 라테라이트의 특성으로 설명된다. (마르지 않는 해자와 물을 저장할 수 있으면서도 물에 가라앉는 라테라이트가 가뭄이 왔을 때 일어나거나 홍수가 왔을 때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준다.)

● 사원 내벽의 그림

사원 내벽에 비슈누의 환생인 라마왕자가 압살라와 힘을 합쳐 하나바에 맞서 싸우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사원 내벽 곳곳에 반라의 여성들이 새겨져 있는데 모두 그 손 동작이 다르다. 이 여성들의 손 동작들을 연결하여 만든 춤을 압살라 춤, 압살라 춤이라고 지칭한다.

● 앙코르와트 건축물 구성 3단계

미물계, 인간계, 천상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왕은 천상계에 상주하여 자신이 높은 존재임을 나타내었고, 각 층을 오를 때마다 목욕탕을 배치하여 왕을 만나기 전에 목욕을 하도록 하였다. 신성한 곳으로 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되기도 하지만, 왕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경계하여 소지품 확인을 하기 위한 뜻이 내포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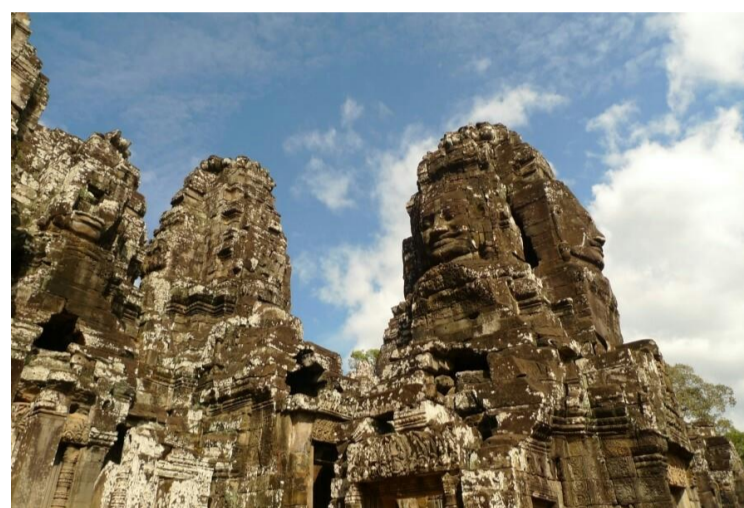
12C 초

앙코르 톰

12C 후반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해 재건되었다.

● 바운 사원

앙코르 톰 중앙에 위치한 불교 사원으로 모두 54개의 석탑이 있는데, 탑의 네 면에는 각각 얼굴이 조각되어 있어 모두 2백16개가 된다. 1층 회랑 벽면에 3단으로 구성된 조각품에는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을 비롯하여 타이족의 한 부류인 참족과의 전투장면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 타프롬

앙코르톰의 동쪽으로 약 1km 떨어져 있다. 자야바르만 7세가 어머니의 극량왕생을 비는 마음에서 12세기 말과 13세기 초에 바운 양식으로 크게 지어졌으며 원래의 이름은 라야비하라였다. 사원의 규모는 가로 600m, 세로 1,000m로 앙코르 유적지 중 가장 크다. 지금은 거의 폐허상태로 서서히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 커다란 나무 뿌리에 침식당하고 있는 모습이 신비스럽다. 무화과, 보리수 등의 커다란 나무 뿌리가 벽과 지붕에 내려앉고 담과 문을 휘감고 있는 모습은 자연의 위용을 느낄 수 있다.



킬링필드

킬링필드는 1975년에서 1979년 사이, 폴 포트의 공산주의 정권 크메르 루주가 저지른 학살행위로 인해 죽은 시체들을 한꺼번에 묻은 집단 매장지이다. 크메르 루주는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지식인을 학살하다가, 나중에는 국민을 개조한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 농민, 부녀자, 어린이까지 학살했다. 3년 7개월간 캄보디아 전체 인구 600만 명 중 1/3에 해당하는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을 학살했다.

● 위문소

폴포트의 정권 시절, 크메르 루주에 의해 당시 캄보디아 사람들이 실제 학살되었던 곳이다. 이 곳에서는 오디오 청취를 들려주며 장소마다 당시의 상황들을 들려준다.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다가, 총알을 아낀다는 목적으로, 가스로 죽이기도 하고, 삼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였다. 심지어, 아기들을 나무에 머리를 박게 해서 죽이기도 하였다. 여성들은 옷을 벗긴 채, 모아두고 죽였다. 위문소 곳곳에서는 당시의 옷들과 시체의 뼈가 땅에 묻혀있는 것이 보였다.



● 수용소 학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중 한 군데이다.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는 20,000개 이상의 킬링필드가 발견되었다. 우리가 간 곳은 투울슬렝이라 불린, 고등학교를 폐쇄하고 만든 크메르 루주의 수용소였다. 이 수용소는 캄보디아 국민들을 이주시켜준다는 위장아래에 모아두고 그들을 상대로 잔악한 고문과 처형을 자행했다. 쇠창살과 독방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사람들은 갇혔고, 방 안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했다. 학살하는 방법은 다양했으며, 글과 사진으로 보존해놓았다.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과 몇십개의 해골들을 모아두었는데, 이것들은 보는 내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20C

현재

University of Puthisastra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위치한 대학교이다. UP (University of Puthisastra)는 우리나라와도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있는 캄보디아의 명문 사립대학이다. UP에서 경제학강의를 들었고, 이어서 UP 대학생들과 경제 및 정치에 대한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하였다.

● 경제

토론 중, 한 학생이 비록 현재는 캄보디아의 GDP는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농업분야의 발전과 건설업, 관광업 등으로 보다 큰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만큼, UP학생들은 농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다른 산업들의 성장도 도모하기 위한 생각을 전달했다. 캄보디아는 현재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이 2.5%로 매우 미미한데, 이것이 해결되어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교육을 받게 된다면, 고차원적 산업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정치

한 정권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체제인 캄보디아의 정치에 대해 질문했을 때에는 의외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반발심이나 부당하다는 인식을 가지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이는, 수도인 프놈펜에 거주하고,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학생들은 대부분이 캄보디아의 상류층 자녀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불만사항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과는 달리, 캄보디아의 학생들은 현 정치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말을 아끼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따라서 우리들의 예상과는 다소 다르게, 프놈펜의 학생들은 일명 '독재'라고 볼 수 있는 정치 하에서,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꽤 많은 학생들이, 이에 대한 반발심 보다는, 안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KOTRA 소개

현재는 전 세계 81개국에 9개 지역본부, 119개의 해외조직망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들의 해외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1. VISION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2. 주요 기능 및 역할
 - 1) 국내 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 2) 해외진출 지원 및 정보 조사
 - 3) 외국인투자 유치
 - 4) 정부 수입사업 수행, 무역투자 전문인력 양성
 - 5) 국가브랜드 제고 및 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
 - 6) 해외전문인력유치지원 및 해외취업, 인턴지원사업
3. 대상기업 : 중소기업 위주



미래

KOTRA



● KOTRA에서 바라본 캄보디아

1. 세계 다국적 기업이 아직 눈여겨보지 못한 시장
2. 정부에서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여기는 에너지, 식량 산업 중 식량 분야에서 투자가능
 - 캄보디아는 3.5기작이 가능함으로 농업에 매우 유리한 토지를 보유하고.
 - 세계 교역량이 가장 많은 쌀의 품종인 인디카 (안남미) 쌀 품종으로 농작함.
3. 기회의 땅인 캄보디아
 - 역사적인 사건으로 많은 지식인이 죽임을 당해 고급인력이 부족함.
 - 유권자 비중이 30대미만이 70%정도 되는 젊은 국가
 - 개발도상국으로서 청년 창업하여 꿈을 펼치기에 좋은 국가
 - 낮은 인건비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대안으로 부상)
 - 투자수익에 대한 자국으로의 송금 제한이 없음.

<KOTRA 캄보디아 팀장님 말씀>
캄보디아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Needs를 분석하여 그 Needs에 맞게 역량을 갖춘다면 어느 기업에서라도 취업할 수 있다!!

결론

캄보디아의 과거를 공부하고 현재를 느끼며 미래를 준비한다면 향후 캄보디아에 창업 또는 관련 업무를 하게 되거나, 혹은 단순 여행이라 할지라도 남들보다 좀더 캄보디아를 깊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을 것이다.